

‘교권보호, 전북교육 대전환 디딤돌’

서거석 교육감, ‘교권침해 예방·보호 강화 위한 교원과의 간담회’서 교권침해 피해 교원들 위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권침해 피해 교원들을 위로하고 교권 보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8일 전주 시 효자동 아카시아홀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교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감-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악성 민원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교원들을 위로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그동안 겪은 교권침해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는데, 전북교육인권센터의 도움으로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교육 현장에 복귀했다”며 “앞으로는 교사가 아이들만을 생각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고등학교 교장은 “순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 자문과 소송비 지원으로 승소했지만, 정상적인 학교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교육활동보호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교원들이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전주시 효자동 아카시아홀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교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감-교원 간담회’가 열렸다.

구체적으로 △현장교원의 법률 보호 요청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 강화 △학교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 운영을 통한 교육적 해결과 회복 지원 △교원보호공제제도의 보상 범

위 확대를 통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피해 교원들에게 위로의 꽃송이와 손난로를 일일이 나눠주며 격려하기도 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들

‘글로벌페스티벌’로 한마음

오늘 개교 77주년 기념 ‘JBNU 글로벌페스티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서 생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페스티벌로 하나되는 시간을 갖는다. 전북대가 개교 77주년 기념해 11월 29일 ‘2024 JBNU 글로벌페스티벌’을 개최하기 때문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글로벌 문화를 나누고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전 세계에서 온 유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다채로운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진수당 일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타악 퍼포먼스와 유학생 동아리 공연, 글로벌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글로벌 퍼레이드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참여해 각국의 문화적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며, 서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8개국(네팔,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

키스탄, 인도, 중국, 파키스탄)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글로벌 문화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이 부스에서는 각국의 전통 의상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한국 학생들도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복체험, 전통공예 체험, K-뷰티 체험 등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유학생들의 장기자랑 공연과 한국인-외국인 버디 퀴즈대회는 페스티벌의 열기를 더욱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화림 전북대 국제처장은 “이번 글로벌페스티벌이 글로벌 학생들과의 문화적 소통과 상호 존중을 위한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캠퍼스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방소멸 위기 대응 ‘머리 맞대다’

전북대, 정책 발굴 위한 지산학 정책포럼 열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계 및 학계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소멸 대응정책 발굴을 위한 지산학 정책포럼’이 11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전북대 사회경제연구센터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교육감, 문승우 도의회의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에서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과 정책적 접근 방안을 다룬 세 가지 발제와 여섯 가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대응 농촌노인돌봄기술 개발방안’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산학 연계 외국인 유학생 및 이주민 전북 정착방안’을 통해 외

국인 유학생과 이주민을 활용한 지역정주 인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권대규 전북대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 스마트헬스케어 전략방안’을 통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임영상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송주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과장, 조영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노주희 전북대 간호학과 교수,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 의장이 나선 토론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방안의 구체화와 실행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포럼을 이끈 유남희 전북대 기록관리학과 교수는 “지방소멸 대응은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뿐만 아니라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관산학연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모두가 행복한 순창교육의 길을 묻다

전북교육청·순창교육지원청, 순창교육정책포럼 개최

순창지역교육 현안 공유·미래지향적 교육정책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남상길)은 28일 순창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제5회 지역과함께특별자문위원회 및 순창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순창지역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교육정책과 농촌지역 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자문위원회는 올해 특별자문위원회 성과를 돌아보고, 순창교육정책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지역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순창교육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순창교육정책포럼에는 특별자문위원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순창마을교육활성화 추진단 등 60여명의 교육 주체가 참여해 지역교육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미영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농촌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

육생태계 구축과 미래교육’을 주제의 기조 발제를 통해 학교와 순창지역이 연계해 지역교육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과 함께 지역 사회에 기반한 순창교육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자로선 권숙이 순창군청 팀장, 왕현정 순창교육지원청 장학사, 허인석 통산초 교장, 구준희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이 참여해 순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미영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축의 가능성을 열어준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지역과함께특별자문위원회는 2025년에도 포럼·정담회·워크숍 등을 운영해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자치도 RISE 시행·정착 도모

전주대, 공감 워크숍 오늘까지... 교직원 220명 참석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원활히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교직원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RISE ‘공감’ 워크숍을 28~29일 양일간 소노벨 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대는 그동안 전체 교수 연수 및 직원 연수를 비롯해 학과장회의, 교무위원연수 등의 연수·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RISE 기본계획을 공유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대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

이번 ‘공감’ 워크숍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대가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모든 대학 구성원들과 RISE를 공유하며 전북특별자치도 RISE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날에는 한국대학평가원 안세근 원장을 초청하여 RISE와 대학교

육의 질 제고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작하여, 한동욱 지역혁신단장(스마트미디어학과 교수)의 △RISE 기본계획 공유 △RISE의 학과 적용 방안과 미래교육아카데미 김진희 대표의 △지자체-대학의 RISE 공감대 형성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아울러, 워크숍 이튿날에는 전체 교직원이 모여 ‘지역-대학 협력모델 구축’이라는 주제를 두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 문화, 기술 등에 대한 열린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대 박진배 총장은 “지역 소멸 문제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는 지역과 대학 각자 해결할 문제가 아닌,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 대학은 이미 지역 문제 극복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미래전북포럼’을 작년년부터 운영해오며 어느덧 10회차 포럼을 개최하며, 전북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는 더 나아가, ‘지



전주대학교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원활히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교직원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RISE ‘공감’ 워크숍을 28~29일 양일간 소노벨 변산에서 성황리에 개최한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역 발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지역과 대학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구성원 모두가 원팀 정신을 토대로 지역-대학 상생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대는 전북 카카오톡루드 전북디지털혁신센터의 대학 내 개소

를 앞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대-카카오톡루드의 협력의 결실로 개소할 이 센터는 지·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이뤄내는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체계의 정착을 위한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훈 기자

도내 학생 3명,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수상

교육부 주최... 교육부장관상 1명·특별상 2명

교육부가 주최한 제12회 전국 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전북 학생 3명이 수상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제12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참가 학생 3명이 각각 교육부장관상(통상)과 특별상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 한국의국어대학교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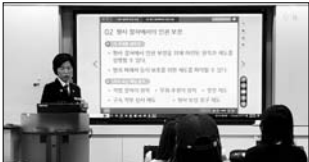
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는 다문화 학생의 이중언어 지원 및 강점 개발을 위해 2013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으며, 전북교육청은 지난 9월 전북지역 예선을 거쳐 제12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에 참가 학생을 선발했다.

중등부 통상 수상자인 완산여자고등

학교 최유리 학생은 ‘꿈을 위한 언어의 힘: 다문화의 가치’라는 주제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발표했다.

초등부 수상자인 전주금령초등학교 아리한 학생은 ‘한글을 배우게 된 것은 나의 큰 행운’이라는 주제를 한국어와 힌디어로, 전주서문초 이시우 학생은 ‘사람을 나누며’라는 주제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각 발표했다. /김재훈 기자



시간에 여성 법률 전문가를 초청하는 협력 수업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이리남성여고, 수사 전문가와 함께하는 협력 수업 실시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교장 강응수)는 학생들의 법률 지식 향상과 경찰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려는 ‘정치와 법’ 협력 수업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28일 이리남성여고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인 김진희 경정을 초청하여 정치와 법 협력 수업을 하였다.

이리남성여고 2학년 인문계열 학생 중 정치와 법 과목을 선택한 57명을

대상으로 형법 내용인 ‘형사 절차의 이해와 인권 보장’과 ‘경찰 진로 탐색’이라는 주제로 수업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한 정일 사회과 교사로부터 ‘형법’의 기능, 죄형 법정주의,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원칙과 제도 등을 공부한 뒤, 김 경정이 직접 겪어 본 형사 절차의 실무를 소개한 뒤,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강응수 교장은 “앞으로도 사회 수업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